

사회

# 새내기 대학생들 '알바 전쟁'

## “등록금·생활비 마련” 피팅모델·신약체험 등 몰려

2012학번 대학 새내기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접어둔 채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재학생들도 등록금 마련과 '스펙'을 쌓기 위한 여학생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알바생을 자처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쟁 치열=광주보건대 방사선과 1학년 김모(여·20)씨는 지난 2월부터 학교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5~6시간 일하고 겨우 최저임금(4580원)을 받는 수준이지만 입학금과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를 생각해 일부는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2학기 등록

금에 보낼 계획이다.

광주의 자택에서 학교를 다니는 김씨의 경우는 양호한 편이다. 자취를 하는 학생들은 기숙사비나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흔하디 흔한 몸모으기 배우는 고수 알바를 찾기도 한다. 실제 이런 대학생들로 인해 이 지역 대학생 기숙사에는 늦은 시간까지 알바를 하다가 입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야 들어오는 학생들도 상당수다.

◇무슨 일이라도 한다=예전 대학 생활에 1순위로 꼽히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호프집 등의 알바는 최근에는 2순위로 밀려났다. 힘들지만 그만큼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흥업소 유혹도=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알바를 찾는 대학생들은 자칫 유흥업소로 빠져들기

직접 입거나 생활용품품 사용하며 홍보에 나서서 '피팅모델' 알바를 찾는다. 일주일 내내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주말이나 수업이 없는 요일에만 시간을 투자하면 되고 10~20만원 상당의 높은 일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체나 연구기관의 신약체험 실험 알바도 있다. 일부 대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고 7~10일 일정의 실험에 참가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을 나가기도 한다.

◇유흥업소 유혹도=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알바를 찾는 대학생들은 자칫 유흥업소로 빠져들기

노래방, 주점 등 유흥업소들이 일 반 아르바이트보다 2~3배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종업원들을 모집하면서 남자 대학생은 '호객꾼'이나 웨이터, 여자 대학생은 노래방 도우미나 주점 여종업원으로 나서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광주 상무지구 한 주점은 여대생들에게 장기 근무를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해주기도 하고 일급으로 알바비를 결제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할 경우 새벽까지 일하면서 학업에 충실할 수 없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빛보증이 불러온 비극

## 부인 수면제 복용 사망 오인 70대 남편 극약 마시고 숨겨

70대 남편의 채무보증 문제로 괴로워하던 60대 부인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쓰러져있자 죄책감에 시달린 남편이 극약을 마시고 숨겼다.

19일 오전 9시경 진도군 조도면 A(70)씨 집에서 A씨와 부인 B(62)씨가 쓰러져 있음 중인 것을 이웃에 사는 친척이 발견,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도 소방헬기에 의해 목욕탕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남편은 숨졌고 부인은 중태다. A씨는 몇 년 전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3000만원에 대한 채무 보증을

근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도경찰에 따르면 이웃들은 A씨 부부가 이 문제로 전날 밤 심하게 다투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인 B씨가 남편과 다툰 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깨어나지 못하자 A씨가 부인이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극약을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섬에서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도저히 갚아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부인이 자살을 기도하고 일어나지 못하자 남편이 아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나원침 (8526) 김종두



## 간호사에 손찌검 김태춘 부하 영장

서울 해방경찰청 병실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범사범과 두목 김태춘씨의 부하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40분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진 김씨를 응급처치하던 간호사가 치료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간호사의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다. /연향뉴스

## 미트서 손님 가장 여성 특정 신체 촬영

○사람들로 붐비는 대형마트 등에서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음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달미.

○19일 광부서부경찰에 따르면 한모(22)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50분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대형마트 매장서 종업원 A(여·26)씨의 엉덩이를 찍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것.

○경찰은 "한씨는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와 장소로 선택해 음흉한 짓을 했다"며 "A씨도 이날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피해를 입었다"고 귀띔.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부적격' 판정 교향악단원 재평정 불참 광주시립예술단 파행 운영

## 15명 모두 연가 제출

지난해말 열린 정기평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평정에 불참, 예술단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

19일 광주문화회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재평정에 해당자 전원이 불참, 평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 따르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5일과 6일 열린 정기평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단원은 현악 10명, 관악 6명 등 모두 16명이었지만 이중 현악주자 한명이 자신사

퇴, 이번 평정 대상자는 모두 15명이었다.

지난 2월말 "불공정한 잣대로 평정을 실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단원 15명은 이날 모두 연가를 제출하고 평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회관측은 연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날 평정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비히는 평정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대신 외지 음악인 5명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 심사위원들은 오후 3시 30분까지 회관에 머물다 해당 단원들이 참여하지 않자 철수했다.

이날 평정을 거부한 단원들은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에 따라 전원 0점

처리됐으며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 처분이 종료된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 여기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단원을 해촉하도록 되어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단원들은 "지난해 열린 평정에서 위원 모두가 81명 단원들에 대한 적격, 부적격 판정을 모두 동일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당초 평정 계획과도 다른 방식으로 평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문화회관 관계자는 "단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평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등록금 인하 찬성! 찬성!

19일 조선대학교 1·8광장에서 열린 조선대 학생총회. 이날 4000여명의 학생들은 학교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확대 등 12가지 학교 현안을 표결에 붙여 99%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참 나쁜 이웃 아저씨

## 공원 화장실서 같은 아파트 초등생 꼬드겨 성추행

## 목포경찰, 50대 구속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목포경찰은 19일 여자 초등생을 성추행한 조모(51·무직)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0분경 목포시 연산동 한 체육공원 화장실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A(8)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사이비종교 끌어들여 수천만원 갈취

## 서부경찰, 2명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9일 행인들을 사이비종교에 끌어들여 협박·감금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황모(여·38)씨 등 2명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5일부터 갈취해 8월21일까지 김모(26)씨 등 2명으로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75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 등은 지난해 4

월15일 밤 9시경 광주시 북구 서방시장 인근에서 고시준비생 김모(26)씨에게 접근, "집에 우환이 있는 것 같다. 시간을 내달라"고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씨 등은 "육왕상제를 대신하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이를 믿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우리가족의 건강은 휘나핫이 지킨다

무릎찢질, 허리찢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머리는 차게하고 허체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따뜻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면서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쓸애이(특허번호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 며 일반반신욕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한인원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할 것입니다(2020년까지). 시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 물없이도 할수있는 휘나핫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 공부할 하면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가족이 함께 사용할수 있습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경쟁'을 검색하세요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지원모집

★ 휘나핫 반신욕 이렇게 하자

휘나핫 반신욕기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본인 편리한 시간에 1~2회정도 하는게 적당하다. 면비지 면티, 면양말 착용 후 휘림도중탕을 종이 한겹 따듯한 한겹복용한 후 반신욕을 시작한다(약30~40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온도설정하세요). 반신욕을 한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지 않고 일정시간(30분~1시간)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샤워를 하지 않아도 땀샘이나 끈적거림이 없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거나 반신욕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더욱 좋다.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전국민 공부합시다! ▶ www.successtv.co.kr ▶ 문의: 070-7804-5358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원치, /정맥이 되살아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리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 옷에도 곱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해마다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식동원의 참다은 생합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